

					G-B-5
제목	국문	스트레스와 혈압, 피로도의 관계			
	영문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blood pressure, and fatigability			
저자 및 소속	국문	허철봉 ¹ , 조성일 ¹ , 장서영 ² , 백도명 ²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교실 ¹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의학교실 ²			
	영문	Zhefeng Xu ¹ , Sung-il Cho ¹ , Shuying Zhang ² , Domyung Paek ² Department of Epidemiology,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²			
분야	역학 [기타]	발표자	허철봉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2월 1일				
<p>1. 목적 직무스트레스는 정신신체적 긴장을 일으키며 소화기계통과 심혈관계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심리적 직무특성의 평가 도구로서는 로버트 카라섹에 의해 개발된 직무내용설문(Job Contents Questionnaire, JCQ)이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49 문항이 직무스트레스의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JCQ에 의해 직무스트레스가 평가된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와 혈압, 피로, HRV(Heart Rate Variability), BMI 등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p> <p>2. 방법 2001년 7월~8월 사이에 서울지역의 모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해 몸무게, 신장, 혈압 등 건강정보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피로수준 설문을 통하여 지난 2주간 참여자가 경험한 피로 정도를 1 점(전혀 아니다)에서 7 점(매우 그렇다)까지로 평가하였다. 심박동측정에서는 일본 GMS사의 LRR-03 측정기로 6분동안 심박동수를 기록하였고 같은 회사의 Memcalc/BP Analyz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박동수 변이와 관련된 개인별 데이터를 구하였다. 한국어판 JCQ를 이용하여 업무 재량(decision latitude), 직무 요구(job demands) 및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를 측정하였다. 업무재량 지수는 48-96 점, 직무요구는 12-48 점, 사회적 지지는 8-32 점 사이에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 SAS 8.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p> <p>3. 결과 건강정보 및 JCQ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 집단은 총 101명(남 72, 여 2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3.19세(SD 8.38, 범위 25-62)였다. 직무내용 변수들의 평균치는 업무재량 58.59(SD 9.60, 범위 48-82), 직무요구 30.84 (SD 6.34, 범위 12-43, 사회적지지 21.80(SD 5.60, 범위 13-32)를 나타냈다. 단변량 회귀분석에서 업무재량은 수축기 혈압(회귀계수=0.34, p=0.03), 사회적지지는 수축기 혈압(회귀계수=0.72, p=0.03)과 피로(회귀계수=-0.26, p=0.02)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성별, 연령, 현재 및 과거 흡연을 보정한 결과 직무내용 변수들과 건강상태변수들의 연관성은 크게 감소하였다. 업무재량과 수축기 혈압(회귀계수=0.15, p=0.34), 사회적지지와 수축기 혈압(회귀계수=0.26, p=0.44), 피로(회귀계수=-0.17, p=0.14)로 나타났다. 직무내용 변수와 다른 건강정보 변수사이에서도 일정한 상관성이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					

4. 고찰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업무재량등 스트레스 지표와 혈압과의 연관성을 보였으며 직무내용과 피로사이의 일정한 연관성도 보여졌다. 그러나 직무내용과 HRV, BMI 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보여지지 않았다. 이는 주로 이번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았고 연관성이 있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일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평가할 때 혼란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